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9월 27일(금)
--(음력 8월 25일)--
Пятница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38 (1210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27일은 러시아에서의 학령전 교육분야 근로자들의 날이다. 정 엘레나 보조교원(왼쪽)과 이 나제즈다 교원(오른쪽)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47호 «야고드카(열매)»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여러 해 성실하게 일한 이들에게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의회) 감사장이 포상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8회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포럼 개최

제28회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극동 에너지 포럼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여러 행사장에서 동시에 포럼 행사가 개최되어 새로운 주제와 세션으로 실시된다. 이중에서도 청년 지원 대책과 직업적 성장, 사회 프로젝트, 생태 및 생산 혁신, 사할린 주 지역 홍보는 특별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약 30개의 세션과 2천 평방미터가 넘는 전시 공간, 영화 상영이 예정되어 있다. 포럼의 일환으로 10월 3일 오후 8시에는 사할린주정부 청사 앞 무대에서 «차이프» 러시아 인기 록 밴드의 콘서트가 열린다.

새 교과서 "사할린주의 역사" 편집 확정

사할린주 교육부에 따르면 일전에 5-7학년 을 위한 새 교과서 "사할린주의 역사"의 내용과 디자인이 승인되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할린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총 3권의 교재가 개발되었고 각 권의 마지막에는 학습과제가 실려있다. 이 교과서는 2025년 9월 1일까지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100만 번째 이용객 기록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이 100만 번째 승객을 맞이했다. 이는 공항 보도부를 통해 전해졌다.

여행자 마리아 라구나는 모스크바행 '러시아항공'항공편에서 체크인하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사할린에 출장 차 방문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행운의 백만번째 손님은 VIP 라운지 서비스 이용권을 선물로 받았고, 항공사로부터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Sukhoi Superjet-100 항공기 모형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사할린, 특수 아동을 위한 올림피아드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장애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주 스포츠 및 인지 올림피아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전했다.

지난 9월 20일(금) 3개 자치체(샤흐초르스크, 홉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어린 참가자들과 '나제즈다(희망)'특수학교와 '극복' 센터의 청소년들이 '극복' 재활 센터에 모였다.

사할린 주 사회복지부와 극복 센터가 주최한 이 행사는 8-14 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러한 올림피아드는 접근 가능한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 아동에게 스포츠 및 리더십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할린과 쿠릴 고령층의 주민 여러분!

10월 1일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제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이 멋진 기념일을 맞아 축하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조국 전쟁 동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고, 수년간의 노력과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손으로 이 지역의 현재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에너지와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녀와 손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할린주의 사회 생활에 참여하고 지식과 경험을 우리와 공유하며 모국에 대한 회복력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보는 것은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 과제는 변함 없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르신을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체 운동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러시아와 우리 섬지역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여러분 곁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 번영을 기원합니다!

동향인 여러분, 즐거운 기념일 되십시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700개 이상 지하실 수리 예정

내년부터 사할린 주에서는 아파트 건물 지하실을 수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정부 회의에서 주택 공공경리부 장관 나탈리아 쿠프리나는 700개 이상의 지하실 공사 진행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3년 동안 계획되어 있다. 또한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시 사할린의 모든 지하실에서 배수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사실상 공동 출입구의 대규모 최신화 프로그램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벽, 바닥, 천장의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우편함과 난간을 교체하고 늘어진 전선을 숨기는 등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주민들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꽃을 배열하고 그림을 걸었습니다. 집은 정돈되었고 주민들은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기술적인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물, 습기 및 파이프 및 하수도 문제가 없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조한 지하실로 이번 겨울을 맞이해야 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지역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주택 및 공공경리부는 아파트 지하실 수리를 위한 3년 계획을 개발했다. 현재 지하실 작업이 필요한 주택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소 목록에는 718채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는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라 목록에 포함되었다. 우선 침수된 지하실을 수리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배수 및 급수 시스템을 수리한다. 긴급 작업이 필요한 건물은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리는 빠르게 수행될 것이다. 하수가 범람하거나 엔지니어링 네트워크가 누출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른 원인은 일주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2025년에는 내부 네트워크 교체, 방수 및 지하수 배수가 필요한 지하실에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일까지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전체 주소 목록이 확정된다. 관리 회사는 사전에 쓰레기 및 기타 보관 물품 청소와 같은 건물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지하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관리 회사에 대한 통지는 주 주택 조사국과 공동으로 준비된다.

(주정부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학장 임 엘비라 교수: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학마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 교수와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새 학기가 시작한 것을 축하합니다. 학장으로서는 지난 해 어떤 해였습니까?

-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매년 9월 1일이 개강입니다. 다만, 학장으로서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년내내 강의, 시험, 학회, 행사, 새 사업 계획 등 다양한 대학생활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입생들과 첫만남이 있을 때에야 개강이 실감납니다.

우리 대학은, 특히 동양학과는 이미 장기간 입학 희망자가 꽤 많고 학생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 올해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칠수 있는 교사 전공에 학생 두 그룹이 되었고 그리고 동양학을 전공하는 학생 한 그룹이 '아시아 언어(한국어)와 다문화 연구'를 전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한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생 다수가 계속 공부하여 현재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여러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해마다 동양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이에 교수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에서 '무한한 지식

의 원천을 찾아내며' 교육기획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현재 14개 다양한 교육·스포츠·문화 등 기관, 단체들이 합동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새고려신문 지상에 잘 소개되었고 앞으로도 잘 반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모든 기관들이 대학이 추진하는 '한국어 대회'에 참가하고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팀별 형식의 행사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한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찾아내며'기획의 일환으로 음력설을 맞아 처음으로 한인문화센터에서 제1회 '웃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학생, 교사, 사회활동가 등이 함께 모여 웃놀이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웃놀이대회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민족 문화에 대한 강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씨름에 대한 강연, 돌잔치에 대한 강연, 추석에 대한 강연 등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고 강연할 때마다 질문이 많이 쏟아집니다.

- 작년에 대학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를 실시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올해도 할 것인가요?

- 네, 맞아요. '극동지역 우선순위'교육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이 작년에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를 추진했죠. 아시아태평양 나라와 더 깊이 협력해야 하는 생각에 기획했고 이미 두 학교를 진행했



습니다. 이 두 학교는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학이 이 국제학교를 실시할 때 많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시 등 약 30개 대학에서 이 국제학교에 참가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 사할린에서 동양 문화, 즉 한민족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양언어 전공을 하는 칼리닌그라드, 모스크바, 민스크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사할린에서 처음 손에 장구를 쥐게 되고, 한민족 무용, 태권도를 처음 해본 것도 신기해했고 주최측에 많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걸 보는 사할린 학생들도 이곳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평판이 좋아졌구요.

3번째 국제학교는 오는 11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지 관련 편지를 보냈고 일부 지원신청이 들어왔구요. 이번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외국인학생 대상으로) 말하기 대회가 개최할 예정이고, 태권도 축제, 그리고 한국 요리 교실과 일본 요리 교실도 열 계획

입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마지막 행사로는 아마도 K-pop댄스축제를 할 생각입니다. K-pop은 젊은 층에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교수님께서서는 물론 학장으로서는 할 일이 많지만 직접 강의를 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강의를 하십니까?

- 강의는 늘 해왔듯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의실에 들어가면 마음이 설레고 강의를 할 여유가 있는 것이 좋아요. "한국어 말하기", "한국문화" 과목을 4학년생들에게 가르쳐요. 4학년생 정도면 한국어 실력도 좋고 한국학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니까 재미있어요. 어떤 주제든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특히 학생들 중에 여러 민족 사람이 있어서 더욱 더 재미있어요. 자기 민족 문화와 비교하기도 하고 같은 점을 자주 찾기도 해요. 서로 재미있고 가끔 신기하기도 해요.

- 대학에서 올해도 전문 재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초급) 과정을 계속 하는데 이번에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수강생 선정을 하셨는지요? 이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작년 2023년에 처음으로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초급) 프로그램을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인회 공동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어요. 2024년에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수강생 모집이 끝났고 이번에도 10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사할린주한인회 덕분에 지방에서 신청

자가 많았어요. 흠스크, 토마리,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카로브, 유즈노사할린스크 수강생들이 10월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 학장님께서서는 현재 사할린주한인협회의 고문이고, 그리고 주한인협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한민족문화 행사가 꽤 많습니까. 이와 관련한 행사와 앞으로의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우리 대학이 하는 많은 문화행사의 파트너입니다. 한식 요리교실은 항상 주한인회에서 지원합니다. 대학이 주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하는 전통적 행사는 한국 관련 경시대회입니다. 이에는 수많은 학교학생들이 참가하는데 지방 학생 수가 많습니다.

주한인협회는 앞에 소개한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찾아내며'교육프로젝트도 적극 협력합니다.

그리고 주한인협회가 주최하는 '세대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프로젝트 일환으로 10월 4일 한인문화센터에서 '장인들의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우리 대학이 이 프로젝트 파트너입니다. 이미 154명의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했는데 이날 이들은 나전칠기 공예를 배우고 젓가락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를 보급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 "2024국민크로스컨트리" 달리기 대회에 약 6천여명의 달리기 애호가들이 참가

전 러시아 달리기의 날에 사할린 주에서 열린 '2024 국민 크로스컨트리'달리기 대회에 6,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는 사할린 주 스포츠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1,5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선에 선 이 행사는 육상선수를 비롯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그들은 건강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즐긴다.

이날 대회에는 500미터, 1, 4, 8, 12킬로미터 등 다양한 거리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500미터 경기 결과에 따르면 미하일 바라노브와 와실리사 예멜리야노바가 1위에 올랐다. 1km를 극복한 선수 중 연령대 별 최고 선수는 알렉세이 사마린, 타치야나 드미트리예와, 세르게이 티쉬킨, 키라 보그다노와, 아르خم 레베데브, 미로슬라와 체부니나였다.

4km 코스에서는 소피아 쿠즈네초와, 드미트리 슈브눔, 안나 코지노바, 유리 라쿤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8km 코스에서는 와실리 아멜린과 웨로니카 드로비츠코가 1위를 차지했다. 콘스탄틴 체부닌은 12 km코스에서 최강자로 꼽혔다.

На Сахалине «Кросс нации-2024» собрал около 6 тысяч любителей бег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дне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2024»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6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

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а старт вышли более 1500 спортсменов. Отметим, что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льзуется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легкоатлетов и любителей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Они не только проявляют заботу о своем здоровье, но и весело проводят время с самыми близкими.

Всего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несколько дистанций: на 500 метров, 1, 4, 8 и 12 километров.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стязаний на 500 метров первыми пришли Михаил Баранов и Василиса Емельянова.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одолевших 1 километр, лучшими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стали Алексей Самарин, Татьяна Дмитриева, Сергей Тишкин, Кира Богданова, Артем Лебедев и Мирослава Чебунина.

На дистанции 4 километров золото взяли Софья Кузнецова, Дмитрий Шубном, Анна Кожинова и Юрий Лагун. Среди легкоатлетов в забеге на 8 километров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и Василий Амелин и Вероника Дробитько. Сильнейшим на дистанции 12 км стал Константин Чебунин.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5,000여명, "준비하라!" 프로그램 이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준비하라!" 프로그램에 따른 무료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회안보및통제국의 홍보실에서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은 평일에 진행된다. 섬 주민들은 전술 의학, 총기 및 공학 훈련, 민방위 및 비상 상황 훈련을 받게 된다.

Более 5 тысяч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ошли подготовку по программе «Будь го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т бесплатная подготовка по программе «Будь готов!»: ее прошли уже бо-

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нтроля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грамме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т в будние дни. Островитянам обучат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е, огневой и инженерной подготовке, а также ГОиЧС.

'사할린의 맛을 느껴봐' 미식 마라톤 대회 개최

제5회 '사할린의 맛을 느껴봐' 섬 요리 미식 마라톤이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미식마라톤은 제28회 극동 에너지 포럼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도시 주민과 손님을 위해 특이한 맛의 조합으로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자체 메뉴를 준비한다. 미식 마라톤의 일반적인 개념은 해산물, 야생 식물과 사할린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 미식 마라톤에는 기록적인 수의 21개 기업이 참가한다.

요리사가 제공하는 제안에는 단일 가격 950루블리의 3코스 세트와 식당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시그니처 요리가 포함된다.

Гастромарафон «Почувствуй вкус Сахалина»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нефтегазового форума.

В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островной кухни «Почувствуй вкус Сахалина» продлится три недели, с 30 сентября по 20 октября 2024 года.

В этот раз он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28-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8면에 계속)

조성용 화가, '우수 풍경화'부문에서 수상

지난 25일(수) '마야크'아트공간의 전시관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사할린 아팔리나'미술대회의 발표·시상행사가 열렸다.

이 대회에 사할린의 54명의 미술가들이 127개 작품을 소개했다. 이 작품들은 8월부터 주미술박물관의 '마야크'전시관에서 전시되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으로는 트레티야코프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장 글레브 체체윈, 위원장으로는 모스크바, 트웨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미술관들의 고급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사상식은 연 사할린주 문화부 논나 라블리크 장관은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발의로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사할린 아팔리나'미술대회는 재능 사할린 미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쿠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올해 대회에 작년보다 거의 2배 더 많은 화백들이 참가하고 작품도 2배가량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사할린 화가들을 축하하며 영감을 기원했다.



이날 6명이 여러 부문에서 수상된 가운데 '우수 풍경화'부문에서 조성용 화백이 우승했다. '말로쿠릴스크의 소나무'풍경화로 상금 20만루블리와 함께 수상한 조 화백은 사할린의 이름난 동포 미술가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어린이 민족지학 교육 센터 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가장 큰 규모의 민족지학 박물관이 지난 9월 23일(월) 사할린주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 민족지학 교육 센터를 개장하면서 "에트노오스트로브(민족심)"라는 독특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민족학 박물관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방법을 사할린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 센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다양한 민족들의 생활 방식, 명절 기념 방식, 전통 및 기타 흥미로운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다. 도서관의 도서 컬렉션은 지속적으로 보충될 예정이다.

"이 센터가 어린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다민족의 나라이므로 어린 시절부터 다른 민족이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어떤 의식과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배우면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에트노오스트로브"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러시아 민족지 박물관 울리야 쿠프리나 관장이 언급하고 러시아 연방의 여러 민족지학 박물관들이 소장한 여러 문헌을 센터에 기증했다.

'에트노오스트로브'센터는 러시아 여러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어린 손님들에게 이를 소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중적인 과학 형식을 통해 어린이들은 러시아 최고의 민족지학 박물관인 러시아 민족지 박물관의 유산을 접할 수 있다. 민족지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엄청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수업, 마스터 클래스,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주제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에트노오스트로브는 교사, 교원 및 기타 교육 분야 직원을 위한 교육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러시아 민족지학 박물관의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할린 주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 민족지 박물관과 울리야 쿠프리나 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지역과 극동 지역, 그리고 아름다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사할린 주 문화·교문서보관부 논나 라블리크 장관이 말했다.

개소식에서 '오흐 미프 사람들'("사할린의 사람들")민족문화센터의 엘레나 니트쿠크 센터장이 님프로 된 신문 '니프 지프'와 블라디미르 상기가 님프로 번역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동화를 선물로 증정했다. 또한 사할린주 민족회 마야 키릴로와 회장은 젊은 세대 교육을 위한 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슬라브 가정용품을 선물했다.

개막식의 특별한 축제 분위기는 민족 보컬 앙상블 "쿠젤료크"와 민족 문화 센터 "류디 오흐 미프"("사할린의 사람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민족지학 박물관은 섬 지역에서 문화 및 교육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시행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1일 개막...60개국 360명 참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하는 2024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10월 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막한다.

대회는 나흘동안 열리며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진행된다.

행사에는 60여 개국 현지 한인회장 및 대륙별한인회 총연합회 임원 등 360여 명과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인사 70여 명 등 총 430여 명이 참석한다.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는 '나의 조국, My Korea',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나의 조국, My Korea'는 전문가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한인회장들이 거주국에서 한국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최초로 한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여는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한인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점 지원 분야, 지원 기준, 지원 과정 등 지원사업 관련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대화, 지역별 현안 토론,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 발표 등 예년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법무부,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재외동포와 관련한 민원서비스, 법무, 병무, 보험 사항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제안과 의견을 듣는다.

○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한인구조단,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인천광역시 등은 대회 기간에 상시 상담관을 열어 동포들의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세계 한인회장들이 참여하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회장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는 한편,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들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신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재외동포청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푸르른 날 /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 하리아,
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아.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그렇게도 무더웠던 날씨가 물러났습니다. 내년 여름은 더욱 뜨거울 거라는 예보와 함께 말이지요. 이제서야 가을이 고개를 드러 봅니다. 제가 본 가을 풍경은 '정상'입니다. 뭐랄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놀이터에 앉아 얘기들을 나누고, 그네를 타며 철봉에 매달리는 느낌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괜히 아파트 한 바퀴 더 돌고, 저 역시 이런 식인 거지요. 걷는 게 즐겁고, 아주 오랜만에 긴 바지를 꺼내 입는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아들 녀석도 이번 가을 날씨가 반가웠는지, 농구화를 신고 농구공을 뒤흔기기 바쁩니다. 정상인 거지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게 어딘지 '지구'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마 미셸 푸코 역시 되살아나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저처럼 한국의 기후에 대해 정상과 비정상을 들먹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을까, 맹랑한 상상이 떠오르네요. 미셸은 한국어를 하나도 모를 테니, 그럴 일은 없는 건가, 아무튼.

아쉬운 소식 역시 들려옵니다. 언젠가부터 가을이 짧아진 느낌이 짝아요. 그런데 이게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을이 정말로 더욱 더 짧아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스콜처럼 비도 엄청 퍼붓지만 겨울이 금새 찾아온다니, 아주 환장하겠네요, 환장해. 그러니까 이 동그란 지구를 태양이 아주 찡구처럼 돌리는 모양새로 접어든 건가요. 태양이 엄청난 괴력을 지닌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행성끼리 소통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우리 인류의 삶은 어찌보면 '삼체'에서의 표현처럼 '벌레'가 아닐는지 아득히 답답해져옵니다. 이런 젠장! 봄도 짧아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여름과 겨울이 주가 되는 날씨로 접어든 거네요. 저는 여름은 당연히 더우니까 질색이고, 겨울은 또 너무 추워서 별로라, 봄과 가을만을 좋아했는데, 두 동공이 부르르 떨려오네요. 멋부리기 좋은 가을 버버리 등 가을 옷들도 제법 구매했던 편인데, 푸르른 날을 맞아 제 불평불만이 허공을 가로지릅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버릴 순 없는 노릇. 휴식과 영감을 핑계로 자주 산과 바다로의 여행을 도모할 마음입니다. 푸르른 날을 보다 더 푸르게 만끽하자는 게 제 인생 모토니까요. 그리운 사람에게에는 문자보다 전화해! 단풍 구경은 11월이 정답입니다. 푸르른 날들이 도래했습니다. 좋아하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들의 책 한권을 배낭에 넣고, 어디든 떠나야겠습니다. 막걸리도 챙겨야지.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인천서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함박마을 문화축제

인천지역 고려인동포 지원단체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이하 문화원)은 대한고려인협회와 함께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함박마을 문화축제 '하우리인천'을 9월28일 연수구 장미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고려인동포들과 인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참여형 행사로 기획됐다.

문화원과 대한고려인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인천에서 하나되고 아우르고 어울리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인천시민과 고려인동포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꾸며진다. 국내외 문화가 어우러져 고려인 이주사와 한민족의 화합을 표현한 퍼레이드를 비롯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고려인의 이주사와 현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고려인역사사진전, 고려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폴리마켓 '고려인만물상점'이 운영되며, 세계 먹거리 문화체험, 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 EDM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손정진 공동대표는 "올해는 고려인동포 이주 1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축제를 통해 고려인 이주사에 대한 재조명과 기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라며, "돌아온 가족으로서의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축제를 통해 고려인동포와 인천시민이 하나 되고 아우르며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имена сильней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тхэквондис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городской турнир по тхэквондо ВТФ в дисциплине "пхумсэ", собравший более 200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17 лет.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спорта регио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откры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етлана Ходюш, пожелала удачи и ярких побед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Спортсмены боролись за медали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о, так и в составе команд по два и три человека.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 Платон Пак, 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сян, Никита Че, Елизавета Кувалдина, Ким Гиль Су и Амелия Елдошева. В "двойках" первенствовали Валерия Ким и Никита Че, а также Ким Гиль Су и Милана И. В "тройках" лучшими стали Назар Грачев, Никита Че и Артем Бульвин, Ким Гиль Су, Артем Аникин и Пак Те Дин, Малика Вагабова, Анна Чертова и Полина Юн, а также Амелия Елдошева, Алена Васи-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ьева и Анастасия Винокурова.

Победители турнира представя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Невельске. Им предстоит сразиться со спортсменами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раво участия в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2025 года.

Праздник «Чусок» прошел в Уссурийске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состоялся 21 сен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ль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Дружба» г. Уссурийска.

Поздр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ладимир Малюшицки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ергей Кузьменко 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ссури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Магомед Терчиев.

«Чусок уже много лет проводится в Уссурийске. За это время он стал настоящим фестивалем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Он помогает нам воспитывать наше поколение на правильных ценностях и чтить культуру разных народов», - отметил Магомед Терчиев.

Яркое событие стало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разл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сего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 16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Приняв всем сердцем новую Родину, вот уже более полутора века мы живем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 наше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е, сохраняя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культуру и обычаи. И праздник «Чусок» хорошее тому подтверждение»,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Уссурийска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иколай Ким.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ли окунуться в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корейцев,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хн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увиде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борцов.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открыли звуч-



ными ритмами барабанов, корейскими лиричными песнями и нежными танцами с веерами, передающими особен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лорит,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ссурийска.

Как передают приморские СМИ,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Чусок» стали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РОО-СК Алексей Чун, возглавляющий Федерацию ссир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ш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манды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ли два борца - Роман Панин и Кирилл Чун, которые завоевали первые места в своих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Впервые тхэквондо ВТФ в остров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Ежегодн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доставляет широкий выбор студенче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секций,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рать то, что им импонирует больше.

24 сентября 2024 г. впервые в остров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ткрылась секция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ВТФ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ого наставника Сон Надежды Валерьевны, тренера самого круп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по тхэквонд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орнадо». Ее тренерский

стаж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20 лет,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Спортсмены Надежды Сон,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Надежды Сон, обладательницы черного пояса 5 дан, тренера-преподавателя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ись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призер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призерами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призерами первенства Европы и мира.

Военкор Сладков показал кадры спасения сахалинцем двоих сослуживцев

Воен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Александр Сладков опубликовал видео, на котором запечатлено, как сахалинец спас двоих сослуживцев. Об этом он поделился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Кореец с Сахалина на квадроцикле проявил отвагу, помогая российским солдатам. Боец отправился в зону СВО добровольцем.

«Чем интересны эти кадры, помимо вечною сюжета спасения близкого с риском для жизни? Поясню. Парень, который управляет квадроциклом, доброволец. Он кореец с Сахалина, где у него с личным положением всё хорошо. Решил идти на СВО. Многие отговаривали. Решил сам. Так как гонят на технике, часто бывает, - спасает сослуживцев, по-



ФОТО: СКРИНШОТ

павших в смертельно опасные ситуации. Поклон сахалинцу!!!», - написал военкор.

Чусок отметили в ЮСМООК

21 сентября на участке, где расположено зда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празднование Чусок. В семейной обстановке тепло поздравили наших подопечны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накрыли стол, вместе повесел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шли поздравить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КО АСК,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ХАНИН», принесли подарки и угощения. ЮСМООК выраж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ям этих организаций - Наталье Яковлевне Ю Е Ни и Алексею Анатольевичу Чон Ен Гон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участие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Безмерно признателен нашим активистам, готовившим на этот праздник стол с угощениям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Людмилы Николаевны Ким Ен Суг. Спасибо Петру Сергеевичу Кан Пал Ен,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за концертную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ам концерта. Пётр Сергеевич устроил презентацию и сам исполнил песню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на слова Пак Ен За, которую зрители встретили теплы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Участник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праздника Чусок порадовали выставкой своего урожая (картошкой, огурцами, баклажанами, помидорами, морковью, перцем, разной зеленью), который вырастили на своих придомовых участках и дачах. Показали, как произрастают на участке ЮСМООК тыква, помидоры. В этот солнечный день получился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21 сентября — День корё сарам

160 лет назад, 21 сентября 1864 года начальник Новгородского поста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поручик Резанов в рапорте на имя вое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тр-адмирала П.В. Казакевича докладывал, что пришедшие из Кореи в Приморье корейцы поселились на реке Тизинхе и прилежно занимаются хлебопашеством. Резанов также просил разрешения открыть им сбыт хлеба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гречихи) в казну, построить мельницу и оказать пособие, уплатив их долг в 200 рублей китайцу Ла за семена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взятые зимо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ервое официа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относится к 1863 году, именно 21 сентября 1864 года стало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датой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Более того, когда в 1914 году приморские корейцы собирались отмечать 50-летие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ые торжества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были намечены именно на 21 сентября.

Газета Вое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Русский инвалид» от 20 марта 1914 года сообщала: «В текущем 1914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50 лет со времени начала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пределы Росси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пределах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орейцы пожелали ознаменовать это событие устройств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Постановлено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иурочить к 21-му сентября, воздвигнуть в урочище Посьете на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каменный па-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В текущем 1914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50 лет со времени начала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пределы Росси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пределах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орейцы пожелали ознаменовать это событие устройств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Дл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азработки вопрос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стоялось съезд выбор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сельских обществ и корейцев-горожан,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выше 25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Съезд выработал подробный проект программы празднования и представил ее на утверждение главного начальника края штаб-майстера Гондатти. Постановлено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иурочить к 21-му сентября, воздвигнуть в урочище Посьете на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каменный памятник в знак изъявлени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рус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селению, составить и издать ко дню празднования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5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пределах России.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покрытие расходов по устройству намеченных торжеств постановлено собрать по подписке сред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корейцев. («Н. В.»).

мятник в знак изъявлени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рус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селению, составить и издать ко дню празднования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50-летне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пределах России».

Руководство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г. Москва) выступило в этом году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бъявить 21 сентября Днём корё сарам.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Чхве Сон Хи: КНДР не будет мириться с враждеб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КНДР не будет мириться с враждеб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которые угрожают её суверенитету и достоинству, а также благополучию народа, защищая мир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 помощью силы. Как сообщила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хве Сон Хи, выступая на четвёртом Евразийском женском форуме, прошедшем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на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ситуация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иближается ко всё более опасной черте. Это вызвано политикой США, создающих союзы с некоторыми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слепо следуют за Вашингтоном. Это ещё больше обостряет напряжённость и создаёт конфронтацию, - добавила Чхве Сон Хи.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закрывался из-за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КНДР

Из-за того, что в воздушной зо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здушные шары с грузом мусора и отходов, утром 23 сентября аэропорт дважды закрывался для приёма и отправки самолётов. Аэропорт был закрыт с 5:25 до 6:43 утра. Он открылся, когда поступил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что воздушный шар, обнаруженный над одной из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ых полос, упал в море. Во второй раз аэропорт закрывали с 6:55 до 7:08 утра, когда фрагменты шаров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на крыше одного из складских помещений и в полётной зон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аэропорта принимает решение о приостановке работы, когда шары с мусором приближаются на определённое расстояние к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ым полосам. Крупных сбоев в воздушном движении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поскольку оба закрытия аэропорта пришлись на периоды минимальной нагрузки.

ООН продлил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санкций проекта озеленения КНДР

ООН продлила на один год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т санкций, действующих против КНДР. 18 сентября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RFA) сообщила о том, что Комитет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о санкциям в отношении СК продлил срок освобождения проекта озеленения КНДР до 21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Речь идёт о поставках материал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оекта создания объектов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аженцев деревьев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районе Кэпхун-дон города Кэсона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Пукто. Проект был запущен организацией «Уриминчжок соро топки ундон» в рамках межкорейски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от 13 сентября 2007 года. В 2010 году он был приостановлен. В 2019 году было получено одобрение на поставку 152 наименований материалов на сумму 1,9 млн долларов. Но на фон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пандемии и охлажд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ередать материалы Северу не удалось. Между тем, ООН также одобрил запрос ВОЗ на поставку Национальному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у институту КНДР оборуд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вакцин.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будет доставлено 1 феврал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орода Нампхо и Синийчжу.

К 2072 году население РК сократится до 36 млн человек

Согласно прогнозам, население РК, составляюще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52 млн человек, к 2072 году сократится до 36 млн человек.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К займёт 59-е место в мире, что на 30 позиций ниже, чем сейчас.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аналитическом доклад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3 сентябр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РК. К 2072 году возраст 47,7%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ревысит 65 лет. РК займёт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треть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сле Гонконга (58,5%) и Пуэрто-Рико (50,8%). Ожидается, что темпы роста населения продолжат снижаться.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ни составят 0,07%, в 2050 году снизятся до -0,82%, а в 2072 году до -1,31%.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ля трудоспособных граждан в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ократится с 70,2% в этом году до 51,9% в 2050 году, и до 45,8% в 2072 году. Число иждивенцев на 100 трудоспособн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которое составляет в этом году 42,5 человека, в 2072 году увеличится до 118,5 человек.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ляет 46,1 года, в 2072 году составит 63,4 года.

Река Хантханган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а как глобальный геопарк ЮНЕСКО

Геопарк реки Хантханган получил повторную сертификацию в качестве Всемирного геопарка ЮНЕСКО и сохранит данный статус до 2027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оторый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симпозиум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ети геопарков, проходившем во вьетнамском городе Каобанге с 8 по 15 сентября. Всемирные геопарки ЮНЕСКО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повторные сертификации каждые четыре года. Нынешняя повторная сертификация стала первой для геопарка реки Хантханган, который был впервые сертифицирован ЮНЕСКО в 2020 году. Его общая площадь составляет 116,5 тыс. гектаров. Помимо реки Хантханган, в РК имеются ещё четыре Всемирных геопарка ЮНЕСКО - остров Чечжудо, уезд Чхон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горы Мудынсан и западное побережье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звали отказаться от идеи объединения с КНДР

Сразу два известных политика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звали пересмотреть нынешнюю стратегию Сеула, нацеленную на объединение с КНДР. Они выступил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инять уже существующую реальность" и выстра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ак с обычной другой страной, но инициировать мирный диалог. Данные иде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иков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перекликаются с провозглашенной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им Чен Ыном новой стратегией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Лидер КНДР заявил, что они более не намерены добиваться объединен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звав РК "просто другим", хотя и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Разные по конкретным формулировкам, но схожие по обще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заявления сделали 19 сентября два видных деятеля предыдущ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экс-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и бывший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м Чжон Сок - в связи с шестой годовщиной подписания в Пхеньяне Совместной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заключена в ходе визита Муна в столицу КНДР в 2018 году. Тогда отнош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переживали период оживления и потепления, а сейчас ситуация совершенно иная, что и было заметно по содержанию высказываний.

Пожалуй, резче всего высказался Лим Чжон Сок, который ранее выступал за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Кореи и ми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Я предлагаю принять уже давно сложившуюся реальность: давайте не будем пытаться объединяться с Севером, а будем просто жить как два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 заявил он, выступая на прошедшем 19 сентября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заседани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движению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024".

Экс-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также призвал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К, зафиксировав там, что территорией Южной Кореи считается не вес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а лишь та часть,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Сеула - то есть к югу от 38-й параллели. Пока же в основном законе территория РК обозначена как вся терри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о есть включая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ысказывания экс-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который за время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провел три саммита с Ким Чен Ыном и был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инициаторов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ом, были хотя и менее категоричными, чем у его бывшего подчиненного, но схожими по сути.

"Учитывая,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означила отношения с нами как отношения двух враждеб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полностью пересмотреть наш подход к достижению мира и стратегии объединения", - заявил он, выступа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 городе Мокпхо 19 сентября. Форум был приурочен к шестилетию подписания Совместной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В процессе пересмотра нашего подхода к объедин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должно играть ведущую роль... Однако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имеет ни желания, ни возможности делать это", - отметил бывший лиде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вно критикуя сво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оппонентов,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у власти в РК и выступают с жестких пози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Мун Чжэ Ин при этом призвал Южную Корею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диалог с Севером, отметив, чт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й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тогда как Сеул останется за бортом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Комментируя 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н выразил опасения, что дело может дойти до прям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тогда как все подписанные при Мун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контактах были аннулированы.

Отметим, что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15 августа опубликовало свою новую версию доктрины объединения, где заявило, что будет пытаться достигнут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 Севером, но при этом выдвинув заведомо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условия и принципы. Эксперты обвин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на в "объединении на основе поглощения" и нереалистичности озвученного подхода.

Высказывания Мун Чжэ Ина хотя были менее конкретны и прямолинейны, чем у Лим Чжон Сока, но явно содержали намек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лного пересмотра подхода Сеула в связи с разворотом Пхеньяна на трек объединения. Интересно, что окружение Муна заявило, что они не были осведомлены о намерении Лим Чжон Сока высказаться в стиле "давайте прекратим стремиться к объединению", в все совпало из-за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вязи с 6-летней годовщиной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2018 года.

Напомним также, что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КНДР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концепции и задачи объединения, людей Южной Кореи считает просто другим народом, а РК -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Правда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Юг является для них именно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а потому отношения будут выстраиваться как с враждебной другой страной. Поз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ласти КНДР перестали выдвигать в своей пропаганде концепции объединения, полностью сменили риторику, а РК стали воспринимать именно как и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без каких-либо упоминаний о "братьях по крови", "единстве нации" и прочем.

В целом же, опираясь на сделанные 19 сентября заявления двух влиятель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фигур Юга,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лед за резко отказавшимся от концепции объединения Севером теперь и на Юге стали громче звучать голоса в пользу принятия сложившихся реалий - жить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не говорить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а отношения выстраивать как с обычной другой страной. Правда Мун и Лим все же, в отличие от Ким Чен Ына, не стали называть КНДР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а, наоборот, призвали выстраивать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от которого Пхеньян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ал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Дева Мария на фоне корейской мозаики

Ватикан, 22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Мозаика, изображающая Деву Марию, одетую в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наряд «ханбок»,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садах Ватикана в пятницу, что ознаменовало первый случай установки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м месте.

Мозаика «Корейская Дева Мария мира» размером 100 на 150 сантиметров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как часть коллекции мозаик Девы Марии со всего мира на «Бастионе Маэстро», стене, которая служит границей Ватикана. Мозаика, на которой изображены Дева Мария и Младенец Иисус, одетые в ханбок, призвана символизировать надежду на мир и прекращение войн, по словам художников Шим Сун Хва и Юн Хэ Ена, создавших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Кардинал Лаззаро Ю Хын Сик, префект Дикастерии духовенства, сыграл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установке мозаики. Он предложил эту идею Папе Франциску в мае 2023 года и при спонсорской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роект был быстро завершён.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благословения кардинал Ю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мозаики, особенно учитывая продолжающийся раздел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глоб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В такое хаотичное время посвящение корейской мозаики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Девы Марии в садах Ватикана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 сказал он.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более 1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католической церкви, включая епископов, регулярно посещающих Ватикан, которые отметили событие восторженны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С добавлением корейской мозаики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мозаик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Девы Марии на стене Бастиона Маэстро увеличилось до 12, а Южная Коре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таким странам, как Колумбия, Доминика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 Филиппины. Кардинал Ю, первый кореец, занявший пост префекта дикастерии Ватикана, сыграл важную роль в повышении авторитета корейской католической церкви.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руководил установкой статуи святого Андрея Ким Тхэ Гона, первого священника Кореи, на внешней стене базилики Святого Пет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членами семей воинов, несущих службу в зоне СВО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поручения по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с которыми к нему обратились родственники бойцов, участвующих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проводятся регулярно, поступающие в ходе них обращения находя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аждый защитник Родины должен знать, что его семью не оставили в одиночестве. Мы поможем в решении любой ситуации, с которой к нам придут. Помогая родственникам воинов, мы укрепляем нашу армию. Поэтому все их обращения должны быть услышан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крывая встречу.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т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яти семе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ьи близкие ранее были мобилизованы. Большинство обращений связаны с бытов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и вопросам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Так, супруга мобилизованного сахалинца попросила помощи в утеплении частного дома. Сейчас город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ищет спонсора,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женщине в решении ее вопроса. Кроме того, прозвучал и вопрос о сроках газификации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где находится дом.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Газпрома», проведение раб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Еще одна заявительница - мать участника СВО - попросила помочь с печным отоплением в доме. Сейчас печь находится в аварийном состоянии, из-за этого в доме сыро и холодно. Губернатор на месте решил эту проблему.

- Нужно просто купить угольный котел и установить его до начала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Муницип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вам и с покупкой, и с установкой, - дал ответ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одна женщина обратилась за помощью с переоформлением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А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а за помощь, оказанную после перенесенного инсульта. Сейчас женщине оказывается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этих процедур за ней закрепят проводника здоровья.

Отметим,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 личные приемы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В ходе таких встреч обсуждаются конкрет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реш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каз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ьям. Как правило, это помощь пр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определении ребенка в детский сад, приобретении топлива для обогрева частного дома или ремонте жилья.

В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65»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ось 100 тысяч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65»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ось 100 тысяч пользователей.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подчеркивает растущ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и значимость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жизн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а.65» - это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разработанно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ля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и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 момента своего запуска приложение стало удоб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мног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Я пользуюсь приложением «Острова.65»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и о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простило мою жизнь. В нем я формирую список продуктов, которые я планирую купить, а приложение показывает где их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с минимальной наценкой. А ес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картой сахалинца, т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скидку в магазине, - поделилась опыто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ложения Анна Смирнов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65»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удобный доступ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услугам,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увидеть историю посещ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узнать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жизни регион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ах и голосованиях по важным вопросам, получ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формить путёвки любительского лова, пополнить ski-pass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Сто тысяч пользователей - это не просто цифра. Это показатель доверия наших граждан к цифр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их готовност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жизни региона.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было разработано, чтобы сделать жизнь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области еще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Разработчики приложения обещают и дальш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функционал «Острова.65»,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отзыва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актуальных потребностя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Больше 700 подвалов отремонтиру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тят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ремонту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доложила о планах по проведению капитальных работ в более чем 700 подвалах.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рассчитана на три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до начала отопитель-

ного сезона в регионе осушат все подв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оперативных работах.

- Мы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или масштаб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ремонту подъездов. Всего за пару лет мы полностью привели в их порядок - обновили покраску стен, полов, потолков, заменили почтовые ящики и перила, спрятали висящие провода. Жильцы расписывали стены, расставляли цветы и вешали картины. В домах порядок, жители довольны. Но нам стали поступать сигналы о проблемах в подвалах. И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ремонту технических помещений.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мы должны решить все вопросы - чтобы не было воды, сырости и проблем с трубами и канализацией. И уже в эту зиму мы должны войти с сухими подвалами, -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азработало трехлетний план по ремонту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МКД.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должа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списков домов,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роведении работ в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ях. Текущий перечень адресов включает 718 домов. Все они вошли в список по информации, поступившей от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ут ремонтироваться подвалы, которые затоплены водой.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ремонт систем водоотведения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ажно, что те помещения,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роведении срочных работ, будут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уже к началу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Ремонт проводится в ускоренном режиме. Если происходит затопление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ми водами или подтекание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устранить проблемы необходимо в течение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остальные причины -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 Информация о затопленных подвалах регулярно поступает к нам через ЦУР, горячую линию ЖКХ, и есть обращен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жилищную инспекцию (ГЖ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18 помещений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причины устранены. В оставшихся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ях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ются. На 9 сентябр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ступили в работу еще 13 адресов: один - в Корсакове, два - в Холмске, девять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один - в Тымовском. Всего в работ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37 помещений. По канализац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страняются заломы выпусков или меняются ветхие сети. Откачивается, вычищается все и полностью высушивается. Таких в работе остался один под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м осталось провести только зачистку, адрес отработан. Есть проблемы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 теми подвалами, которые подтапливаются грунтовыми и поверхностными водами, там нужно делать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водоотведени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2025 году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в подвалах, где требуется замена внутренних сетей, проведение гидроизоляции, утепление грунтовых вод. До 1 октября совместно с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заверши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лного списка адресо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также будут обязаны провести подготовку помещений - уборку мусора и других предметов хранения,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к подвалам. Уведомления для УК будут подготовлены совместн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жилищной инспекцией.

Отметим,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и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почти 700 дворов и около 7000 подъездов. В этом году капитальными работами охватили 187 дворов.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дворы» ремонтируют еще 11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 стадии завершения находится программа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емонта в подъезд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порядок на сегодня привели свыше 2,8 тысячи объектов.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осенью.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абоча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ремонтирует в ДНР около 40 объектов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дшефного Шахтерского район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готовят план ремонт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2025 год.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него включено около 40 социальных и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Более двух лет назад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взяли шефство над городами ДНР и ЛНР, пострадавшими от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так со стороны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З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был закреплен Шахтерский район ДНР.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осрочно выполнили план работ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восстановили 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39 объектов. Среди них, устройство освещения пришкольных стадионов, капремонт кровли, пищеблока и фасадов в школах №18 и №19, а также в Шахтерской гимназии. Замена оконных блоков, устройство резинового покрытия, ремонт водосточной системы и другие работы проведены в ясли-садах №2 «Искорка» и в «Шахтерском ясли-саде» №4. На территории этих учреждений также появились современные игровые комплексы. Восстановлено уличное освещение на улице Гагарина. Проведен ремонт четырех лифтовых объектов, капремонт фасадов, замена оконных блоков, ремонт кровли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кровли тепловых пунктов в нескольких микрорайонах города Шахтерск и прилегающих к нему поселках.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регионам поручена работа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юд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на н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степ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за все время не были сорваны сроки ни по одному объекту. Скажу честно - это не просто ремонт дороги, водопровода или школы. Те, кто здесь работает, представляют всю Россию, в которую новые регионы вошли. Мы должн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эти территории,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жизнь здесь вошла в привычное комфортное русло. Поэтому все работы всегда проводятся качественно, и зачастую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В план ремонт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Шахтерском районе на 2025 год включен ремонт кровель около 1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уделить трансформаторным подстанциям. Ремонт этих объектов позволит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города, избавить его от частых отключений света. Также в планах ремонт кровли и замена оконных блоков в городском детском саду № 3,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школах № 11 и № 19.

- Мы намерены создать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в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Шахтерска. Выполнить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омещений и заменить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здании центра для детей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озвести банно-прачечный комплекс в интернате для инвалидов. Также намерены в двух селах района установить модульные здания почтовых отделений. Они буд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играть роль центров «Мои документы». Рабоча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будет и впредь прилага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создать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телей подшефного Шахтерского района,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целом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кром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рочно выполнили план работ на н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ключено почти 400 соци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Специалист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как получить соцконтракт на развитие бизнеса или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стреча проходила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7 сахалинцев, планирующих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Соцконтракт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ить стартовый капитал на создание сво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и начинаю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выплаты могут малоимущие или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Липявка пришла на встречу, чтобы узнать о со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она планиру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бизнес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 Наши остров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ятся вс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для туристов. Я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что есть свободные ниши, в которых мо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силы. Хочу, чтобы хобби приносило мне не только удовольствие, но и доход! - поделилась Светлана.

Выплаты по соцконтракту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создани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или ве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акже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сахали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ризнанные нуждающимися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о, либо в течение полугода, получают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дежду, обувь, оплатить детские товары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луги, купить лекарства, пройти лечение ил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медосмотр.

Члены семьи получателя соцконтракта становятся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адаптации. Им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собия на период до 9 месяцев. Если в работе нуждается студент, на время поиска вакансии ему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социальная стипендия. Также соцконтракт покрывает расходы на обучение профессии в пределах 30 тысяч рублей.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шансы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безработному предлагают оплачиваемую стажировку. А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работу перечисляют выплаты, равные одном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прожиточному минимуму.

-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 одна из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За восемь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лючено 394 соци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а,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помощь получили 909 человек,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еализацию цел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За оказ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отде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나는 사할린 출신 영주귀국자

나는 2009년 12월 3일 아내와 함께 러시아 연방 사할린(Sakhalin)에서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로 영주 귀국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새로운 보금자리인 문산읍 당동 3단지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밤이었다.

적십자사 직원의 인솔 하에 307동 504호에 들어갔다. 아파트 문턱을 들어설 때 먼 길을 오는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아담한 거실은 우리의 마음에 꼭 들었고 매우 따뜻했다. 거실 한구석에 주방 1개, 방 2개, 욕실과 넓은 베란다. 남은 생의 터전은 기대 이상으로 좋아 보였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구와 생활용품들도 잘 마련돼 있었다.

67년, 사할린에서 보낸 기나긴 세월이 문득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부모, 그리고 8남매가 편의시설 하나 없는 단층 집에서 어렵게 살았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침대도 없었고 식사도, 잠자리도, 공부마저 그저 방바닥에서 했다. 겨울은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름에는 무더위를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다.

1945년 해방 후 생활 수준은 나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집에서 살아야 했다. 소련 정권은 국가가 건설한 아파트를 소련인들에게만 무료로 분양했다. 무국적자인 나는 사할린에서 거의 7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파트 생활은 한 적이 없다.

일제는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를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에도 연해주에서 사할린까지 한국인이 이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일, 가라후토)을 차지했을 때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자손이다.

일본의 사할린 개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1920년대에 한국인의 이주도 본격화되었다. 이주와 강제 동원 모두 1938년부터 194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의 이주자는 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출신이었고, 석탄광산, 벌목장, 군사기지 건설 사업에 종사했다.

사할린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 1689년 러시아와 청이 체결한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약 150여 년 간 연야무르 지역을 떠나야 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시모다 조약(1855년)과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1875년)에 따라 사할린은 러시아 제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1904 -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자 1905년 8월 23일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영토를 일본이 차지했다.

이렇게 섬의 영토는 두 개로 나뉘고 남부는 일본에 넘어갔다.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을 받은 일본정부는 그곳에 행정국과 자체통치조직, 선거 체계를 만들었다. 쿠릴 열도는 홋카이도 총독 체계로 편입되었다. 1907년 남사할린 지역에 가라후토(樺太 樺太) 총독 체제가 수립되고 1908년에는 도요하라(豊原)(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중심이 되었다.



새로운 땅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인들도, 한국인들도 사할린으로 갔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은 가혹한 군사정치체제를 수립하고 경제 팽창을 진행해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위험한 군수기업들에서 한국인을 노예처럼 부렸다.

우리가 사할린으로 간 이유

일본의 억압과 박해, 계획적인 대량학살 정치는 다수의 한국인들을 외국으로 망명하게 만들었다. 이들 중에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1904~1905년과 1945년의 2차례에 걸친 러일 간 무력 충돌은 사할린 한인들의 영혼과 심장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일본 식민지 권력에 대한 모든 비판과 선동, 파괴 공작을 없애기 위해 폭동, 소요, 무질서, 언론, 일본 황실 권위 훼손, 정치범죄, 사회질서유지 등에 관한 온갖 종류의 법령과 명령이 만들어졌다. 한국인들에게 창씨개명까지 실행했다. 1930년대 초 농민들은 기아의 한계에 이르렀다. 유일한 탈출구는 외국으로 도주하는 것이었다. 험벗고 굶주린 농민들은 만주, 시베리아, 일본으로 떠났다.

가라후토 총독 체제는 사할린에서 가능한 최대량의 천연자원을 확보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곳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산업은 무단으로 벌채한 목재 생산과 가공이었다. 또한 남사할린 전체에서 30개에 달하는 새로운 탄광 개발을 시작했다.

전시상황에 석탄 수출이 지역 소비보다 많아졌고 해마다 계속 증가했다. 사할린 섬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오지세이시(임산업)', '미쓰비시'와 '미쓰이(석탄사업)'등과 같은 독점기업들의 혹독한 경쟁이 진행되었다.

일본 경제의 군수화가 시작되었고 통화팽창이 강화되었다. 일본제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아시아 대륙의 내륙으로 확장시키려는 야욕을 보였다. 사할린에서 군용비행장 건설을 시작했고 철도건설이 완성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군사 및 경제적 상황을 침체화시켜 노동자원의 급격한 증대를 필요로 했고, 이는 한반도에서 총당했다. 초기에 일본 식민 권력은 과대한 약속을 하면서 '달콤한 말로' 자원 모집을 하는 형태로 이주를 진행했지만 이것으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38년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총동원'에 대한 법령을 공포했다. 1939년 9월부터 한국인들의 대규모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국민직업능력신고'와 '노동동원'에 대한 법령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0년과 1944년 사할린과 태평양 남서부 지역의 도서에 파견할 젊은 한국인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총동원을 실행시켰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약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차출되었고, 그들 중 약 6만 명이 사할린으로 보내졌다. 이들의 처지는 처참했다. 대부분 군용 비행장과 철도, 탄광, 목재 가공 등 고되고, 위험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 했다.

강제동원자들의 증원

우리 부모님은 1939년 일제가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낯선 이국땅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아버지 박득수는 1915년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비교적 지식수준이 높았다. 조선 소학교에서 일본어와 조선어를 배웠고 서당에서 2년간 한문도 공부했다. 아버지는 16세 때 누나를 따라 사할린에 들어갔다. 돈을 벌기 위해 7년 동안 그는 갖은 일을 다했다. 농장 노동자로, 부유한 일본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로 일했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가 강순예과 결혼 했다. 이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1939년 3월 사할린에 강제 동원됐다. 첫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는 남편을 찾아 사할린으로 떠나야만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인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송됐지만 한국인들은 사할린에 그대로 잔류해야 했다. 1994년 2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영주귀국시범사업'이 실현됐다. 영주귀국 대상자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자들이다.

러시아의 가장 큰 섬 사할린

사할린 섬은 북위 46도에서 55도에 이르는 남북 길이 948km의 길쭉한 섬 (면적 76400km²)이다. 이 섬은 러시아의 수많은 섬 중 가장 크다. 타타르 해협과 오호츠크해 사이에 있으며, 쿠릴 열도와 함께 러시아의 사할린 주를 이룬다.

사할린과 우리 동포의 애환

비극의 시작

1905년 러·일 전쟁 후 사할린 남쪽의 절반이 일본에 점령되었다. 목재와 석탄,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이곳에 1920년대부터 한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는 1932년 후에 전시 경제와 인플레이션 경제로 변화했다.

그 결과로 조선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15만 명이 사할린으로 끌려왔다. 1946년 소련 정부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4만 3000여명의 '조선인'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었다.



그들은 홋카이도 하코다테를 거쳐 와카나이에서 배를 탔다. 300톤 급의 철선 맨 밑바닥에 42명의 조선인들이 짐짝처럼 실려왔다. 8시간쯤 걸렸는데 밤 7시경 캄캄한 코르사코브(구 오오도마리)항에 도착했다. 나이부치 (현재 브이코브) 탄광에 끌려온 이들은 그 다음날 일을 시작했다.



광부들은 석탄을 파내는 기구와 마찬가지로 하루 12시간 이상 탄을 캐고 밥도 선채로 먹어야 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톤씩 파내야 했고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도 많이 났다. 남사할린의 철도는 한국인의 인력으로 건설됐는데, 한국인의 시체를 침묵으로 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 정책에 따라 한국인들은 일본화되어야 했다. 우리들은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일본말만 사용해야 했다. 일본 국민이었고 이름조차 일본 이름으로 바뀌어야 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소련 점령군에게서 일본 스파이라는 의심 받고 희생됐다.



“조선인들을 죽여라!”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났다. 일본이 전쟁에서 완패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이 스파이로 소련군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센징'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故 김경순 씨의 증언에 의하면 1945년 8월 18일에 가미시카 (현재 레오니도보)에서 해방 당시 소련군이 진격하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스파이라며 아버지 김경백(54)과 오빠 김경대(18) 등 18명을 끌고 가 모두 불태워 죽였다.

1991년 6월 사할린의 한글신문인 “새 고려 신문”이 소련 점령군 재판 기록을 통해 밝혀낸 미즈호 (현재 포자르스코예)촌 학살 사건이 우리의 가슴을 또다시 아프게 했다.

1945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인들이 어린이와 여자들을 포함한 27명의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칼과 사냥총으로 무장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집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고 한다.

“일본이 패한 데다 조선인들이 소련군을 반가이 맞이한다는 소문을 듣고 괴씸해서 모두 죽이기로 했습니다. 한 여인이 다섯 아이를 데리고 떨고 있는 것이 불쌍하기는 했지만 모두 칼로 찔러 길가 웅덩이에 던졌다”라고 한 일본인이 재판에서 말했다.

이런 만행은 사할린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동포 1세 노인들은 말했다. 일본인들은 같이 피난 간 한국인들을 코르사코브(이전 오오도마리)와 흠스크(이전 마오카) 항구에 있는 창고에 몰아넣고 불질러 죽였다.

[글=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
[출처] 경기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товят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авторское меню с локаль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в необычных вкусовых сочетаниях. Общая концепция гастромаарафона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репродуктов, дикоросов и сахалинских ягод.

В этом году гастромаарафон собрал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заведений-участников – 21.

Предложения от шеф-поваров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сеты из трёх блюд по единой цене – 950 рублей и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стоимость которых заведения устанавливаю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유즈노사할린스크, "책 공원" 축제로 푸쉬킨 탄생일 기념

지난 9월 2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리 가가린 공원이 동화 속 루코모리예로 변신했다. 알렉산드르 푸쉬킨 탄생 225 주년을 기념하는 제 5회 가족 독서 페스티벌 "책 공원"이 이곳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사할린 주 어린이 도서관의 홍보실이 전했다.

여러가지 취향을 만족시킬 20개 이상의 행사장소에서 예술단들의 공연, 동화 작가 및 미술가와와의 만남, 퀴즈, 퀘스트, 연극 공연, 낭독,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다양한 신작품과 클래식 작품을 갖춘 도서 박람회가 열렸다.

'오흐 피프 사람들'민족 문화 센터 연인들이 출연한 님프허 뮤지컬 공연 '어부와 물고기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꼬마들은 "푸쉬킨의 이야기"를 연기해보고 인형극을 관람하고, 연령층이 높은 아이들은 문학 배틀과 퀘스트에 참여하고, 부모들은 새로운 문학에 대해 배우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신작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기 동화 작가의 사인도 받을 수 있는 독서박람회도 매우 인기가 많았다.

'책 공원'축제는 2022년부터 사할린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에 '미래의 책' 국제대회의 '새로운 독서 형식' 부문에서 수상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юбилей Пушкина фестивалем «Книжный парк»

В субботу, 21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превратился в сказочное Лукоморье: здесь с размахом прошел V фестиваль семейного чтения «Книжный парк», посвященный 22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 С. Пушки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Более 20 площадок на любой вкус предлаг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стречи с детскими писателями и художниками, викторины, квесты, театр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громкие чт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конечно же, книжную ярмарку с богатым выбором новинок и классики.

Ярким акцентом стало музык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казка о рыбаке и рыбке» на нивхском языке в исполнении артистов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Люди Ых миф».

Гост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нашли себе занятие по душе: малыши играли в «Сказки Пушкина» и смотрели куколь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ребята постарш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литературных баттлах и квестах, а их родители знакомились с новинками литературы и общались с писателями.

Конечно же, огром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ась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где можно было не только приобрести новинки, но и получить автограф у популярных детских авторов.

Напомним, что фестиваль «Книжный парк» провод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с 2022 года. В 2024 году проект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Книга будущего» в номинации «Новые форматы чтения».

유즈노사할린스크, 40개 벽화가 더 생겨

거리 예술을 통해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아트프로그램 "시선"이 사할린에서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40 개의 벽화가 더 생겼다고 텔레그램 채널 "common grounds"에서 보도되었다.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거리 화가들이 주택 외벽을 변화시켰다. 약 12,000평방미터의 도시 면적은 지역의 역사와 해양 탐험, 자연과 보존, 젊음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예술적 실천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이제 도시에서는 네 가지 예술 코스를 따라 걸을 수 있다. 이미지가 적용된 건물 외관은 "젊음"(콤포스몰스카야 거리), "전망"(미라 대로), "사할린의 역사"(레니나 거리), "사할린의 해양 개발"(사할린스카야 및 네벨스카야 거리)이라는 주제의 관광투어코스로 선택되었다. 대규모 벽화 작가는 알렉산드르 쉴킨, 일리야 Wince, 니키타 로마노프, 다냐 Shozy, 티무르 Fork, 알렉산드르 구원, 루스탐 Qbic이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ло на 40 муралов больше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ась паблик-арт программа «Взгляды»,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ри помощи стрит-арт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ло на 40 муралов больш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common grounds».

С мая по сентябрь преобразованием фасадов домов занимались уличные художник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Около 12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городских площадей стали пространством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актик на тему истории и морского освоения региона, природы и ее сохранения, молодости и энергии.

Теперь в городе можно пройтись по четырем арт-маршрутам. Фасады, на которые нанесены изображения, выбраны под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Молодежный» (улиц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Видовой» (проспект Мира),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а» (улица Ленина), «Морское освоение Сахалина» (улицы Сахалинская и Невельская). Авторы масштабных работ - Александр Демкин, Илья Wince, Никита Романов, Дания Shozy, Тимур Fork, Александр Гушин, Рустам Qbic.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